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서영경, 황여진 그림



표지 탐색하기

※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을 보고, 떠올린 생각은 무엇인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책에 나올 이야기를 예상해 보면서 물음에 답하세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역사, 우키시마호!

1945년 8월 22일 강제로 끌려갔던 조선인 8천여 명은 조국으로 돌려보내 주겠다는 일본의 말만 믿고 우키시마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에 도착하기만을 배 안에서 가슴 졸이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출항 이틀 뒤, 조국으로 향하던 배는 일본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중 갑작스럽게 폭발하고, 배에 탄 수천 명의 조선인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책은 우리 역사와 너리에 점점 잊혀가고 있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생존자들의 증언과 역사적 자료들을 토대로 재조명하면서 진상 규명과 함께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잊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① 강제로 끌려갔던 조선인 8천여 명이 '우키시마호'에 올랐던 이유를 쓰세요.

⇒

②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과 재조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서영경, 황여진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덩치가 커다란 아저씨가 작은 소리로 이죽거렸다.

· “어찌나 급하게 오미나토 행 기차를 타라고 채근하던지 강제 징용으로 끌려오던 때만큼이나 정신이 없었다니까요.”

· 그러자 주위에 있던 어른들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 아주머니가 전선을 흘깃대며 한탄하듯 말을 이었다.

· 까맣게 사위어가는 어둠이 보이는 모든 것을 꿀꺽꿀꺽 집어삼켰다.

(나) · 처음에 재훈이는 병구와 ㉠□□이 □□서 잘 지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이가 틀어져 버렸다.

· 내뻔듯 대꾸하려던 병구가 입술을 달싹거리다 갑자기 어금니를 문 채 ㉡□□ 먹은 □□□가 되었다.

1) (가)에서 밑줄 친 각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짝지어 선으로 이으세요.

이죽거리다	•	•	① 가볍게 자꾸 흘겨보다.
채근하다	•	•	② 불이 사그라져서 재가 되어가다.
주억거리다	•	•	③ 고개를 앞뒤로 천천히 끄덕거리다.
흘깃대다	•	•	④ 어떻게 행동하기를 따지어 독촉하다.
사위어가다	•	•	⑤ 자꾸 밍살스럽게 지껄이며 짓궂게 빈정거리다.

2) (나)의 밑줄 친 표현 ㉠~㉡의 뜻을 보고,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이 □□서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뜻이 맞아서
㉡□□ 먹은 □□□	: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놀림조로 이르는 말.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서영경, 황여진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이른 새벽부터 네 척의 검은 ()가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우키시마호로 실어 날랐다.

- 괜히 엄한 꼬맹이한테 ()를 부린 것 같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 “꼭 죽은 사람한테 마지막 ()을 해 주는 것처럼 아주 곱게 단장해 놓은 것 같습니다.”
- “장교님들이 왜 그런 ()까지 하러 가는 겁니까?”
- 자원봉사자들의 어깨에는 () 진상 규명이라는 글씨의 띠가 둘러져 있었다.

(나) · 밧줄이 거칠고 딱딱했다. 밧줄을 내려다보며 시루 속 콩나물처럼 ㉠다닥다닥 붙은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화장실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 회의하는 해군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작아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그렇게 화통 삶아 먹은 것처럼 ㉡목소리가 크더니 웬일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1) (가)의 각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세요.

- ① 거룻배 : 돛이 없는 작은 배.
- ② 허드렛일 : 중요하지 아니하고 허름한 일.
- ③ 폭침 : 배 따위를 폭격하거나 폭발시켜 가라앉힘.
- ④ 염 : 시신을 수의로 갈아입힌 다음, 베나 이불 따위로 씌.
- ⑤ 호기 : 거만스럽게 잘난 체하며 자꾸 버릇없이 구는 기운.

2) (나)에서 밧줄 친 ㉠과 ㉡을 각각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아 쓰세요.

- ⇒ ㉠ :
- ㉡ :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서영경, 황여진 그림



1. 우키시마호 승선 / 2. 안녕, 오미나토

※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서두르시오. 조선으로 가는 마지막 배요."

"오늘부터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에게 식량 배급은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키시마호를 타지 않으면 영원히 조선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오미나토 항을 뒤흔들었다. 오미나토 항에 모인 사람들은 우키시마호로 옮겨 줄 거룻배의 차례를 기다리는 조선인들뿐이었다. 모두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되풀이해서 스피커로 시끄럽게 방송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덩치가 커다란 아저씨가 작은 소리로 이죽거렸다. / "쳇, 전쟁에서 패한 주제에 큰 소리는!"

(나) "일본 병사들이 부산에 안 가려고 했다는 얘기 들었어? 조선 사람들이 언제 힘을 합쳐서 폭동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수천 명이나 되니까 힘을 합치면 자기들이 군인이래도 어쩔 수 없다나. 아무튼 그래서 겁난다고 했다. 또 뭐랬더라. 맞아. 자기들은 부산에 가면 다 총살당할 거라고 했다가 봐." / "뭐, 총살?"

"맞다. 나도 들었어. 윗사람들이 생각 없이 자기들한테 부산에 가라고 명령했다고. 부산에 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

"별 해괴한 소문이 다 도네.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왜 괜히 폭동을 일으키겠어."

1) (가)~(나)에 나타난 '조선인'과 '일본 병사들'의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완성해 보세요.

(가) 조선인 : 조선인에게 식량 배급은 없다고 들었고,
(나) 일본 병사들 : 조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지 몰라서 부산에 안 가려고 했고,

2) (가)에서 '덩치가 커다란 아저씨'가 작은 소리로 이죽거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서영경, 황여진 그림



3. 자갈돌의 발견 / 4. 폭탄

※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균형? 누가 그래?" / 병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되묻자, 재훈이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대답했다. / "일본 병사가 그랬어.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자갈돌을 실은 거래.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더라. 너는 자갈돌을 왜 실은 거 같은데?"

"그야, 개구리 다리에 돌맹이를 묶어서 연못에 던지면 말이지....."

내뻘뻘 대꾸하려던 병구가 입술을 달싹거리다 갑자기 어금니를 문 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재훈이도 개구리 뒷다리에 돌맹이를 묶어 연못에 던졌던 일이 떠올랐다. 개구리는 연못에서 두 번 다시 올라오지 못했다. 재훈이는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웅얼웅얼 대꾸했다. / "어, 억지 부리지 마."

(나) ㉠"폭탄이 연결된 전선이 배 밑까지 늘어져 있다는데....."

㉡"배가 출발하기 바로 전에 폭탄을 실었다."

"배에 전선이 기관실에만 있겠냐? 우리가 탄 이 우키시마호, 오천 톤급이래. 얼마나 큰지 봐서 알잖아. 음, 그러니까 이 우키시마호엔 전선이 많고 많다는 거지. 전선 이랑 폭탄 같은 건 이 배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리고 배에 폭탄을 왜 싣겠어. 자기들도 같이 타고 가는데, 실었다면 어딘가로 운반하는 거겠지."

1) (가)에 나타난 '재훈이'의 말과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완성해 보세요.

㉠ 배의 균형을 잡고, 배가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_____ _____ _____	⇔	㉡ 개구리 다리에 돌맹이를 묶어서 연못에 던지면 _____ _____ _____
--	---	--

2) (나)에서 '어른들'이 말한 ㉠과 ㉡을 반박하는 내용을 찾아 쓰세요.

⇒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서영경, 황여진 그림



5. 수상한 병사들 / 6. 항로 변경

※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왜 물건을 우리에게 나눠 주는 겁니까?"

"우리는 부산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다 주는 거지."

병사가 심드렁한 얼굴로 대꾸했다. / "싫으면 내놔라."

당고 바지 아저씨는 잽싸게 병사에게 받은 담요를 들고 되돌아갔다. 뒤에서 지켜 보던 어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너도나도 물건을 받아들었다. 병구와 복순이는 얼음 처럼 굳어진 채 서로 눈길을 마주 보았다.

(나) "기관실 옆 창고에 폭탄이 있대요. 길게 연결된 전선도 봤어요. 또 자갈돌을 많이 실었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였어요." / "맞아요."

병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구 뒤에 숨어 있던 복순이도 얼굴을 내밀고 조그만 목소리로 고자질하듯 말을 이었다. / "해군 아저씨들 다 이상해요. 군화랑 담요도 바다에 버렸어요. 술 많이 마시고 잔뜩 취해서 잠든 아저씨도 있어요."

거짓말이 아닐까 의심하던 미나미 중위의 눈에 조금씩 힘이 들어갔다. 그러고는 무엇인가 곰곰이 되새기는 듯하더니 혼잣말을 하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분위기가 이상하긴 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1) (가)에서 '일본 병사'가 자신의 물건을 '조선인'에게 나눠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나)에 나타난 '재훈이'와 '복순이'의 말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완성해 보세요.

① 재훈이 : 기관실 옆 창고에 폭탄이 있다고 들었고, _____

+

② 복순이 : 해군 아저씨들이 다 이상하며 _____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서영경, 황여진 그림



7. 기관실 소동 / 8. 고무보트 탄 장교들

※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미나미 중위가 기관실 창고 문을 열었다. 재훈이와 복순이는 미나미 중위를 따라 기관실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무엇인가가 검은 천막에 뒤덮여 있었다. 미나미 중위가 검은 천막을 들추었다. / "폭탄을 신다니!"

그 말에 재훈이가 불쑥 나서서 물었다. / "이게 진짜 폭탄이에요?"

미나미 중위가 폭탄 근처를 살폈다. 폭탄과 이어진 전선이 바닥에 늘어져 있었다. 전선은 길게 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문을 넘어 배 아래 쪽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전선 때문에 기관실 창고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나) 일반 해군 병사들에 비해 좋은 옷을 입은 장교 두 명과 병사 한 명이 바다에 뜬 고무보트 위에 올라탔다. 두 명의 장교와 병사는 냉담한 얼굴로 고무보트에 앉았다. 고무보트를 호위하는 병사들의 표정이 어쩐지 어두웠다. 그때 구석 한쪽에서 한 병사가 크게 따지고 들었다.

㉠"식수 옮기는 일쯤은 병사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장교님들이 왜 그런 허드렛일까지 하러 가는 겁니까?"

미나미 중위였다. 미나미 중위의 목소리가 높고 날카로웠다.

1) (가)에서 '우키시마호'의 기관실 창고의 문이 열려 있었던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2) (나)에서 '일본 장교' 두 명이 고무보트에 올라타자 '미나미 중위'가 ㉠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나미 중위'의 행동에 담긴 뜻을 밝히고, 이와 같이 행동한 미나미 중위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세요.

⇒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서영경, 황여진 그림



9. 침몰

※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콰콰꽝! / 느닷없이 배에서 무시무시한 굉음이 울렸다. 배가 휘청 흔들렸다. 우키시마호가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다. 기관실 쪽에서 빨강계 솟아오르는 불길이 보였다. 시꺼먼 연기가 높이 치솟아 오르며 하늘을 가렸다. 멀리서 사람들이 소리쳤다.

"기관실이다." / "기관실에서 폭탄이 터졌다!" / 그 순간 재훈이 가슴이 철렁했다. 기관실? 얼떨결에 가까이 박힌 손잡이를 움켜쥔 복순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람들이 살려 달라며 외치는 고향으로 주변이 난리였다. 충격을 받아 배 밖으로 튕겨져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며 아우성쳤다.

(나) 몇몇 어른들이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다.

"쫓쫓, 여기에서 겨우 500m 앞인데." / "헤엄쳐서 오기엔 너무 멀어요."

바다에 잠긴 우키시마호는 이제 거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우키시마호 주변에는 손을 뻗어 살려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허우적대고 있었다. 올라왔다 사라졌다 하던 무더기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기도 했다. 검은 기름을 뒤집어 쓴 재훈이는 차마 울지도 못하고 파들파들 떨며 바다를 노려보았다. 까맣게 사위어가는 어둠이 보이는 모든 것을 꿀꺽꿀꺽 집어삼켰다.

1) (가)~(나)에서 벌어진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완성하여 쓰세요.

<p>(가) : 무시무시한 굉음이 울렸고, 배가 흔들리더니 기울기 시작했고, _____</p> <p>_____</p> <p>_____</p>	➔	<p>(나) : 바다에 잠긴 우키시마호는 거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_____</p> <p>_____</p> <p>_____</p>
---	---	---

2) (나)에서 폭발 소리를 듣고 나와 있었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정리해 보세요.

⇒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서영경, 황여진 그림



10. 우키시마호 위령제

※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며칠 전 재훈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우키시마호 위령제 추모제 초대장을 내보이며 말했다. / "부산 수미르 항에서 열리는 추모제에 가야겠다."

재훈 할아버지의 아들이 단박에 반대하고 나섰다.

"아버지, 강제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던 일이나 우키시마호 사건 따위, 인제 그만 잊으세요. 참담했던 일을 왜 자꾸 되새기는 겁니까? 되새기길."

아들은 싫은 내색을 숨기지 않고 벌컥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이야기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라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 일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그냥저냥 파묻힐까 무섭습니다."

재훈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쳤다. 그러자 위령제 개최 위원이 재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큰일입니다. 우키시마호 위령제를 위해 나서 줄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다들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일본 마이즈루 항에서 해마다 열리는 위령제도 매한가지인 모양이더군요."

1) (가)에서 '재훈 할아버지'가 '우키시마호 위령제 추모제'에 가야겠다고 말하자 '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모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2) (나)에서 '재훈 할아버지'와 '위령제 개최 위원'이 각각 걱정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여 쓰세요.

⇒



돌아오지 않은 광복선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서영경, 황여진 그림



정답과 해설

1쪽	<p>1) (예) 광복선이 돌아오지 않았다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하다.</p> <p>2) (예) 부두에 짐을 든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일본군 한 명이 오른손에 긴 칼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작은 배가 바다에 떠 있는 커다란 흰 배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p> <p>3) ① 조국으로 돌려보내 주겠다는 일본의 말만 믿어서 ②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p>
2쪽	<p>1) 이죽거리다-⑤, 채근하다-④, 주억거리다-③, 흘깃대다-①, 사위어가다-②</p> <p>2) ㉠ : 죽, 맞아, ㉡ : 꿀, 병어리</p>
3쪽	<p>1) ①, ⑤, ④, ②, ③ 2) ㉠ : 시루 속 콩나물(처럼), ㉡ : 화통 삶아 먹은 것(처럼)</p>
4쪽	<p>1) (가) 조선에 돌아가기 위해 오미나토 항에서 우키시마호로 옮겨 줄 거룻배의 차례를 기다렸음. / (나) 부산에 가면 다 총살당할 것이고, 뒷사람들이 생각 없이 부산에 가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2)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주제에 큰 소리를 냈기 때문에</p>
5쪽	<p>1) ① 자갈들을 실은 것이며, 기술적인 문제라고 일본 병사가 그랬다고 말했다. / ② 두 번 다시 올라오지 못했던 일이 떠올랐지만, 고개를 저으며 억지 부리지 말라고 말했다.</p> <p>2) 오천 톤급인 우키시마호에는 전선이 많고, 폭탄을 실었다면 어딘가로 운반하는 것임.</p>
6쪽	<p>1) 일본 병사들이 부산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서 2) ① 길게 연결된 전선도 봤고, 또 자갈들을 많이 실었는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고 들었음. / ② 군화랑 담요도 바다에 버렸고, 술 많이 마시고 잔뜩 취해서 잠든 아저씨도 있다고 말했다.</p>
7쪽	<p>1) 폭탄과 이어진 전선이 문을 넘어 배 아래 쪽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p> <p>2) (예) 미나미 중위는 배를 떠나는 일본 장교들에게 왜 식수를 옮기는 허드렛일을 하러 가냐고 말했다. 이 말을 통해 식수를 공급 받기 위해 입항했다는 일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크게 따지고 들었던 미나미 중위의 모습이 용감해 보였다.</p>
8쪽	<p>1) (가) 기관실에서 폭탄이 터졌다는 소리와 살려 달라는 사람들의 고향으로 주변이 난리였음. / (나) 살려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허우적대다가 보이지 않기도 했고, 재훈이는 울지도 못하고 떨며 바다를 노려보았음.</p> <p>2)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고, 겨우 500m 앞인데, 헤엄쳐서 오기엔 너무 멀다고 말했다.</p>
9쪽	<p>1) (예) 재훈 할아버지에게 강제 징용으로 끌려갔던 일과 참담했던 우키시마호 사건을 그만 잊으라고 하는 재훈 할아버지의 아들 생각은 옳지 않다. 강제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우키시마호에서 죽어간 조선인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2) •재훈 할아버지 : 우키시마호 사건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흐르는 세월 속에 그냥저냥 파묻히는 것 / •위령제 개최 위원 : 우키시마호 위령제를 위해 나서 줄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p>